

[목포권]

물속에서 5년 지나면 '자연 분해' 친환경 통발 나왔다

수산과학원 '생분해성 섬유' 개발...해양오염 최소화 기대

해양오염을 가중시켰던 통발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가 개발됐다.

국립 수산과학원 수산공학팀은 3년여 연구 끝에 지난 2005년 일정기간(5년)이 지나면 물속에서 자연분해돼 없어지는 친환경 소재인 '생분해성 섬유'를 개발했다.

수산과학원은 개발된 생분해성 섬유를 이용, 통발(시잔)을 제작해 서해안 일대에서 최근 2년간 현장 적용 시험을 실시한 결과 기존 통발과 어획성능은 같은 반면 자연 분해되는



과정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생분해성 섬유로 통발과 자망 등 어구를 제작할 경우 해양환경오염을 최소화해 어업자원 감소를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수산과학원은 앞으로 생분해성 섬

유를 이용한 새로운 어구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꽃게와 노래미, 낙지 등을 잡는 어구인 통발(직경 60cm, 높이 25cm 크기의 원형)은 수명이 3년에 불과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통발은 사용 연한이 지나면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하나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바다에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어구를 과실로 바다에 버렸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실제 지도·단속이 어려워 지난해 목포해경 관내에서의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 문화 유적지 4곳에 노인 문화재 지킴이 운영

목포시가 문화유산을 잘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노인 문화재 지킴이' 제도를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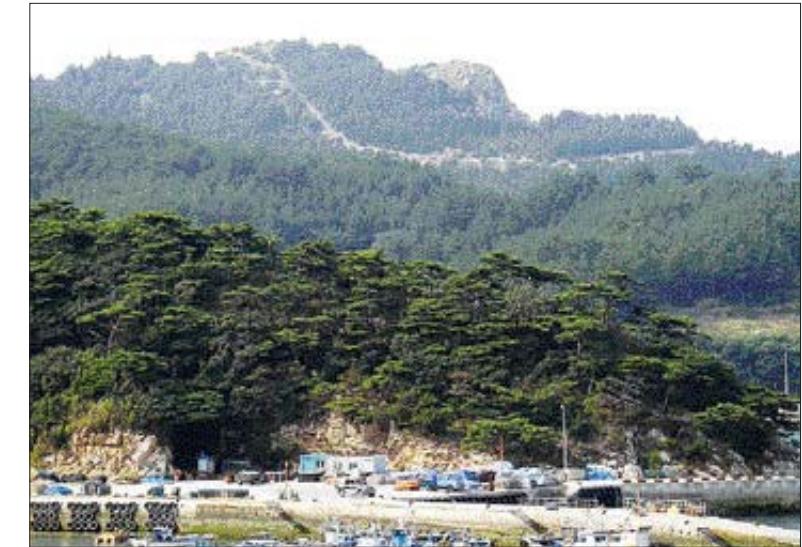
목포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2개소를 비롯해 등록 문화재(7개), 도 지정 문화재(11개) 등 모두 20개의 문화재가 있다.

이 가운데 옛 동양적식 주식회사 목포지점(근대역사관)과 구 동본원사 목포별원(종양교회), 구 청년회관(임마누엘교회) 등 4곳은 별도 관리자가 없어 세심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를 4곳에 대해 다음 달부터 '문화재 지킴이'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신안 '상라산성' 道 문화재 지정 예고



흑산면 읍동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상라산성은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반월형 구조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흑산도 읍동마을 일대...길이 280m 반월형 형태

한-중-일 교역항로 중요 거점 해양문화 꽂피워

중국과 한반도, 일본을 연결하는 중요 거점으로 고대 해양문화를 꽂피웠던 신안군 흑산면 진리 읍동마을 일대 상라산성이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됐다.